흔한 강아지 질병과 증상

강아지를 돌보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강아지는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며 일상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적인 동물입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활력이 없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질병으로 인한 신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면역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성견에 비해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강아지의 예방접종 일정을](https://www.royalcanin.com/kr/dogs/puppy/puppy-vaccinations)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강아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이 바로 보호자의 역할이죠.

평소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깊게 살피는 것 또한 책임감 있는 반려인의 역할입니다. 이와 더불어 질병의 조기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징후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강아지가 평소와 다르다면?

새롭게 맞이한 강아지와 보호자는 서로를 알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강아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강아지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면 질병의 신호를 나타내는 이상 행동 및 증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강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일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혹 식욕 및 음수량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기온의 변화가 있었나요?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의사에게 문의하세요.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강아지의 증상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강아지 질병

강아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생후 첫 몇 달 동안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강아지가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눈병

강아지의 눈 주변을 정기적으로 닦아주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눈곱이 과도하게 생기거나, 눈을 찡그리거나 눈 주변을 자주 비비는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감염성

귓병[강아지의 귀를 항상 깨끗하게](https://vetfocus.royalcanin.com/en/scientific/ear-infection-what-the-owner-needs-to-know)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강아지 귀염증이 생기면 강아지의 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강아지가 귀를 과도하게 털거나 핥거나 긁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활력 저하

강아지가 체력 회복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평소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피곤해 보이거나 활력이 없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으므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설사

[강아지의 소화기 질환은](https://www.royalcanin.com/kr/dogs/health-and-wellbeing/does-my-puppy-have-diarrhoea)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사료가 바뀌었거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섭취했을 때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강아지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5. 탈수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강아지의 탈수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토나 설사가 심한 경우에도 탈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잇몸의 표면이 건조하거나,](https://www.royalcanin.com/kr/dogs/products/canine-care-nutrition/dental-care)끈적한 침을 흘리거나, 피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기력이 저하하는 등 강아지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6. 식욕

부진강아지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활동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풍부한 사료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분리되는 등 일상에 변화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식욕 부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식욕 부진이 지속될 경우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건강 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피부

문제강아지의 피부는 활동 중에 다양한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와 털 상태를 확인하여 상처, 진드기나 벌레 물린 자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털의 윤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픈 강아지 돌보는 법

강아지가 아픈 모습을 보일 때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강아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불안한 모습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행동하여 강아지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나 행동이 보인다면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이러한 관찰 기록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언제든지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의사는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처 : 강아지 아플 때, 증상으로 보는 강아지 질병 | Royal Canin KR~~

전 세계 수의학 서비스 시장은 2023년에 1,113.1억 달러에 달하며, IMARC Group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하여 2032년까지 1,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의 증가, 동물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 기술 발전이 이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 지역이 높은 가처분 소득과 선진화된 인프라 덕분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의 증가는 도시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수의학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의학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진단 도구와 치료 프로토콜의 발전이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수의학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격 의료와 전문 수의학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은 높은 반려동물 소유율과 경제적 여유 덕분에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동물 건강과 복지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도 비슷한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Addison Biological Laboratory Inc., Elanco Animal Health Incorporated, CVS Group PLC 등이 있으며, 이들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과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의학 서비스 시장은 여러 세분화 요소를 통해 분석되며, 서비스 유형으로는 수술, 진단 테스트 및 이미징, 신체 건강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수술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소유 증가와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인해 외과적 수술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 용도별로는 동물병원과 동물 진료소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의학 서비스 시장은 반려동물 소유의 증가, 동물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조사 보고서의 견적의뢰 / 샘플 / 구입 / 질문 폼❖  
  
전 세계 수의학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3년에 1,113.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IMARC Group은 2024~2032년 동안 4.5%의 성장률(CAGR)을 보이며 2032년까지 시장이 1,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 증가, 동물 건강에 대한 지식 증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높은 가처분 소득과 선진 인프라로 인해 북미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의학 서비스 시장 분석:  
주요 시장 동인: 특히 도시 지역에서 반려동물 소유가 증가하면서 수의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수의학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진단 도구 및 치료 프로토콜의 빠른 기술 발전이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 동향: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수의학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격 의료의 확대와 전문 수의학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트렌드: 수의학 서비스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는 높은 반려동물 소유율, 상당한 가처분 소득, 선진화된 수의학 인프라로 인해 지배적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도 동물 건강 및 복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높은 인식 수준으로 인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 환경: 수의학 서비스 산업의 주요 시장 플레이어로는 Addison Biological Laboratory Inc., Armor Animal Health, CityVet, CVS Group PLC, Elanco Animal Health Incorporated, Ethos Veterinary Health LLC, FirstVet, Greencross Vets, Heska Corporation, Idexx Laboratories Inc., Intervet Inc. (Merck & Co. Inc.), PetIQ LLC, Pets at Home Group PLC 등이 있습니다.  
도전과 기회: 이 분야는 최신 수의학 서비스 시장 분석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진단 및 치료 서비스의 높은 비용과 숙련된 수의학 전문가 부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의 증가, 경제 상황의 개선, 동물 건강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모두 큰 발전 잠재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의 서비스 시장 동향:  
반려동물 소유 증가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수의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물을 위한 건강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억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 유럽연합(EU), 중국에만 5억 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3,700만 명, 개를 키우는 사람은 6,200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구의 개와 고양이에 대한 연간 동물병원 진료비는 367달러에서 253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서 반려동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수많은 동물 복지 단체와 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수용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소유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반려동물 소유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과 병원의 환자 수가 증가하여 서비스 확대와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

동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의학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접근성 향상 덕분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 예방 접종,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장기적인 건강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건강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 예방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수의학 전문가와 단체들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일정, 기생충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책임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동물 건강 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수의 서비스 시장 성장이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

수의학의 발전

최근 수의학 서비스 시장 조사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기술 혁신과 과학적 발전은 이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며 진단 능력, 치료 옵션 및 전반적인 동물 치료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첨단 실험실 검사 등 최첨단 진단 도구를 통해 수의사는 일상적인 건강 문제부터 복잡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진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의 조기 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개입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의약품, 백신 및 치료 프로토콜의 개발로 수의학 치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보다 맞춤화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의학 서비스 시장 세분화:  
IMARC Group은 2024-2032년 글로벌,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예측과 함께 시장 각 부문의 주요 동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서비스, 동물 유형 및 최종 용도에 따라 시장을 분류했습니다.

서비스별 분류:

수술  
진단 테스트 및 이미징  
신체 건강 모니터링  
기타

수술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

이 보고서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장을 자세히 분류하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술, 진단 테스트 및 이미징, 신체 건강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수술은 예방 및 응급 치료 모두에서 수술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술 서비스에는 일상적인 중성화 수술, 정형외과 수술, 종양 제거,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응급 시술 등 광범위한 개입이 포함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외과적 수술이 더욱 빈번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기법과 기술의 발전으로 수술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필요한 경우 외과적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유형별 분류:

반려동물  
농장 동물

반려동물은 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고서에는 동물 유형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분석한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과 농장 동물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수의 서비스 시장 분석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과 주인 사이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이 부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 소형 포유류 등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려는 의지가 높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동물병원 방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수의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만성 질환과 노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해지면서 반려동물 시장에서 반려동물의 우위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용도별 분류:

동물 진료소  
동물 병원

이 보고서는 최종 용도에 따라 시장을 자세히 분류하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병원과 동물병원이 포함됩니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과 동물에 대한 일상적인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예방 접종, 건강 검진, 기생충 관리, 경미한 치료 및 기본 진단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주인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접근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병원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을 통해 동물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동물병원은 동물의 더 복잡하고 중요한 건강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고급 진단, 수술 절차, 응급 치료 및 중환자실(ICU)을 포함한 다양한 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물병원에는 고도로 숙련된 수의사 전문가가 상주하며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수술실 등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류:

북미  
미국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중국  
일본  
인도  
대한민국  
호주  
인도네시아  
기타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기타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멕시코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지역이 가장 큰 수의학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미(미국,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유럽(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 라틴 아메리카(브라질, 멕시코 등), 중동 및 아프리카 등 모든 주요 지역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제공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는 수의학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지역 시장입니다.

북미는 높은 반려동물 소유율, 상당한 가처분 소득, 선진화된 수의학 인프라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높은 경제적 지위는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웰빙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수의학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합니다. 또한 북미에는 최첨단 기술과 고도로 숙련된 수의사 전문가를 갖춘 동물병원 및 병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도적인 수의학 제약회사의 존재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R&D)이 시장 성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쟁 환경:  
시장 조사 보고서는 또한 시장의 경쟁 환경에 대한 포괄적 인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주요 기업의 자세한 프로필도 제공되었습니다. 수의학 서비스 산업의 주요 시장 플레이어로는 Addison Biological Laboratory Inc., Armor Animal Health, CityVet, CVS Group PLC, Elanco Animal Health Incorporated, Ethos Veterinary Health LLC, FirstVet, Greencross Vets, Heska Corporation, Idexx Laboratories Inc., Intervet Inc (Merck & Co. Inc.), PetIQ LLC 및 Pets at Home Group PLC가 있습니다.  
(이는 주요 업체의 일부 목록 일 뿐이며 전체 목록은 보고서에 제공됩니다.)

주요 업체들은 반려동물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과 지리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다 접근성이 높고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 진단 도구와 원격 진료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전문 서비스를 통합하고 시장 입지를 넓히기 위해 파트너십과 인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예방 치료 및 웰니스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업체들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 참여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의 수의 서비스 시장 보고서 (2024-2032) : 서비스별 (수술, 진단 테스트 및 영상, 신체 건강 모니터링 및 기타)~~

밀크(14·비글)는 사람으로 치면 80대 노령견이지만 하루에 한 시간씩 공원 산책을 하고 와도 한번 더 나가 자며 애교를 부리는 건강한 강아지였다. 14년간 아픈 적이 없어 병원 한번 안 가본 것이 자랑이었던 밀크가 어느 날부터 밥을 남기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사료에 입도 안 대고 구토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 보호자는 놀란 마음에 급하게 동물병원을 찾아왔다. 안타깝게도 밀크의 증상은 14년간 쌓여온 만성 신부전인 듯 보였다.

신장 기능 유지가 곧 치료

신장은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주며 전해질과 수분을 유지하고 조혈인자를 분비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신장에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신부전이라고 부른다. 신부전은 수 시간에서 몇 일안에 심한 손상을 입어 발생하는 급성과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신장의 기능이 점차 떨어져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걸러주지 못하게 되는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과 만성의 가장 큰 차이는 신장 기능의 회복이다. 급성의 경우 절절한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정상치까지 회복할 수 있지만 만성의 경우 정상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며 관리를 통해 현재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

물 많이 마시고 소변량 증가

급성 신부전의 경우 산책 중 유박비료와 같은 독성물질을 먹거나 포도와 같은 과일을 먹었을 때 발생하게 된다. 만성 신부전은 유전적 요인이나 선천적인 신장 기형, 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신장의 노화, 사구체 질환, 염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만성 신부전에서 신장의 노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강아지의 만성 신부전은 수의학에서 총 4기(IRIS stage)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1기와 2기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신부전을 발견하기 어렵다. 3기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의 양과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식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상실되며 구토·설사·변비·체중 감소·고혈압에 의한 시력 감퇴·발작·구취·체온 감소 등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혈액·소변·초음파 검사로 진단

만성 신부전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앞에서 언급한 밀크는 혈액 검사상 신장 수치가 상승해 있었고 빈혈 증상도 확인됐다. 신부전이 발생하면 조혈인자의 부족으로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소변 검사상 비중의 저하, 단백질뇨 그리고 초음파 검사상 양측 신장의 사이즈가 작아져 있었고 신장의 피질 에코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밀크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됐다.

수액 요법과 투석으로 치료

강아지 신부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치료법은 수액 요법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늘어나는 ‘다음다뇨’ 증세로 인해 생긴 탈수를 교정하며 올라간 신장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한다. 만성 신부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망가진 신장을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병의 악화를 막고 지속해서 관리해 강아지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성 신장병의 단계에 따라 관리를 시작하며 1~2단계에서는 질병의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해 탈수와 식이를 관리하고, 3~4단계에서는 임상 증상에 따른 대증 처치와 대사장애를 완화하는 것에 집중한다.

급성 신부전일 때도 수액 요법을 사용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오줌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투석 치료를 고려한다. 투석치료는 만성 신부전에서도 종종 사용되긴 하지만 독성 물질이나 약물을 잘못 복용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급성 신부전일 때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우수한 방법이다.

신부전뿐만 아니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심장병, 약물 과다 복용, 중독 증상 등에도 사용된다. 투석 방법에 따라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구분하며 혈액투석은 다른 질병이나 강아지의 체중,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형견의 경우 주의를 요하며 진행해야 한다.

단백질·인 많은 음식과 간식 피해야

강아지의 만성 신부전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호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만성 신부전은 노령견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드물게 어린 강아지들에게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니 강아지 나이와 관계없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강아지 질병이 그러하듯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반려 생활을 위해선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신부전을 앓고 있는 강아지는 식단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다. 만성 신부전이 발견됐다면 반드시 수의사와 상의해 신장에 무리를 주는 단백질, 인이 많은 음식이나 간식은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단계에 맞는 관리를 해야만 신장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강아지 상태에 따라 식단과 치료 방향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낮은 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신장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 1년에 1회 동물병원을 방문해 간단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출처 : ~~수의사 칼럼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강아지 만성 신부전' - 핏펫 블로그 - 핏펫몰,~~

반려동물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만성신부전이 점차 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부전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진단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신부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Q. 만성신부전의 대표 증상은?  
  
만성신부전이 진행될수록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많아진다(다음, 다뇨). 소변 농축력이 떨어져 묽은 소변을 본다. 병이 깊어지면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질환이나 체중감소, 빈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Q. 만성신부전은 어떻게 진단할까?  
  
신부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검사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검사 등이 있다.  
  
■혈액검사  
  
1. BUN과 크레아티닌수치는 신장기능평가에 중요한 지표다. 이 수치들이 상승하면 신장기능이 70% 이상 저하된 것을 의미한다. 또 인, 칼슘, 전해질수치도 신부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2. SDMA는 비교적 새로운 지표이며 신부전을 조기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신부전이 50% 이상 진행되면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3. 고양이의 경우 ▲FGF23검사가 조기에 신부전을 진단하는 최신검사로 떠오르고 있다. BUN과 크레아티닌은 신장이 어느 정도 나빠진 후에 수치가 오르기 시작한다. 초기 신부전을 증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FGF23 같은 조기마커를 이용해 초기에 신부전을 확인하면 신장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 간혹 무작정 신부전이 진행되는 것이 무서워 미리 인 제한 식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칼슘혈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FGF23지표를 활용하면 고양이에게 맞는 인 식이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변검사  
  
▲UPC(요단백질-크레아티닌 비율)와 ▲UAC(요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검사는 소변에서 단백질과 알부민의 양을 측정하여 신장기능을 평가한다. 신부전이 심해지면 소변에서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 많이 배출되는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수치를 활용해 단백뇨, 알부민뇨를 줄이는 내과적관리가 병행될 수 있다.  
  
■영상검사  
  
▲초음파나 ▲방사선(X-ray)을 통해 신장의 크기와 형태를 확인함으로써 신장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만성신부전이 진행될수록 신장의 크기는 점점 작아다. 영상검사를 통해 신장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변화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Q. 신부전으로 진단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반려동물의 신장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식이관리다. 신부전 환자용 처방식을 제공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단백질과 인의 함량을 조절한 식단이 주로 권장된다.  
  
두 번째는 혈압관리다. 신부전에 걸린 반려동물은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보조제사용이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인 결합제 등의 보조제를 통해 신장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다.  
  
네 번째는 수액치료다.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수액치료를 한다. 정맥수액 또는 피하수액처치를 진행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엑소좀 줄기세포치료와 같은 항노화치료다.  
  
최근에는 엑소좀 줄기세포치료가 신부전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치료법은 신장세포의 재생을 도와 신장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은 투석이다.  
  
신부전이 심해져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관리가 어려울 때 투석을 통해 신체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제거할 수 있다. 투석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반려동물의 만성신부전은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진행을 늦추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정기검진과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며 신부전의 초기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고령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신장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출처 :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만성신부전, 조기 진단·관리가 수명연장의 열쇠 - 헬스경향~~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노령고양이가 흔히 겪는 질환 7가지  
  
: 노령묘 집사님들, 필독하세요!  
  
#2.  
  
요즘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노령고양이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생 질병 없이 자라주면 정말 좋겠지만  
  
다수의 노령고양이들이  
  
다양한 질환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특성상 통증을 잘 드러내지 않아  
  
늦게 질병이 확인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징후나 증상들을 미리 숙지해  
  
질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첫 번째 질환은  
  
<만성신부전>  
  
만성신부전은 노령고양이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노화나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 신장기능이 손상돼  
  
혈액 내의 불순물이 쌓여 결국  
  
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 음수량 및 소변량 증가, 체중감소, 식욕부진, 구토 등이 있다면  
  
동물병원에 들러주세요!  
  
#4.  
  
두 번째는  
  
<심장질환>  
  
고양이에서는 심장근육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비대성심근증이 가장 흔하며  
  
심장판막의 퇴행성변화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시작되면 심장의 순환기능이 떨어져  
  
심부전상태로 발전될 수 있으며  
  
운동을 안 하려고 하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주로 보일 수 있습니다.  
  
#5.  
  
세 번째는  
  
<당뇨병>  
  
당뇨병은 혈액 중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질환으로  
  
비만인 고양이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고양이의 경우 질병 초기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췌장이 파괴됐다면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요합니다.  
  
#6.  
  
네 번째는  
  
<관절염>  
  
관절염은 보호자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더 흔하게 노령고양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동성의 저하나 수면 양의 증가,  
  
높은 곳에 잘 올라가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  
  
보호자는 나이 들어 생긴 변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7.  
  
다섯 번째는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분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식욕이 왕성한데도 계속 체중이 감소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밖에 구토, 설사, 음수량·소변량 증가도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주요 증상입니다.  
  
#8.  
  
여섯 번째로는  
  
<치과질환>  
  
치과질환은 노령고양이에게서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은 아닙니다.  
  
3살 이상 고양이의 2/3 이상이  
  
크고 작은 치과질환으로 고생한다고 추정됩니다.  
  
노령고양이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식욕 저하나 체중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심한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일곱 번째는  
  
<종양>  
  
노령고양이에게는  
  
많은 종류의 종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은 어떤 종류의 종양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종양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이상으로 노령고양이 보호자가  
  
알아두면 좋은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곱 가지는 고양이를 키운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①만성신부전  
  
②심장질환  
  
③당뇨병  
  
④관절염  
  
⑤갑상선기능항진증  
  
⑥치과질환  
  
⑦종양  
  
사실 노령고양이 진료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질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을 함께 동반하고 있어  
  
진단과 관리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11.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  
  
자기의 불편함을 잘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보호자가 질병을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심하게 진행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령고양이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출처 : ~~[카드 뉴스] 노령 고양이가 흔히 겪는 질환 7가지 - 헬스경향~~

고양이 감기증상, 세균성 기관지염

감기약을 처방받아 내복약을 먹었으나 약 먹을때는 괜찮았고, 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호흡기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 내원하게된 케이스입니다.

▶ 검사 진행

면역이 떨어져 있는 아기 고양이일 경우, 제일 먼저 의심해보는 것은 바이러스, 세균성와 같은 감염성 호흡기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샵에서 다른 고양이로부터 가지고 온 병균에 대한 잠복기 질환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콧물이 나올 경우 단순 감기증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혹시 점점 더 심해지거나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경우 기본적인 전신 컨디션, 식욕, 활력이 정상이므로 콧물 샘플을 채취하여 감염 질병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이에서 호발하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에 준해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콧물에서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세균이 검출되어, 세균성 호흡기 질환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치료 방법**

검사 결과대로 마이코플라즈마 균에 잘 맞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2~3주간 약물 치료 후 경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내복약 복용한지 1주 차부터 임상증상은 개선되었고, 추가적으로 1주 더 복용 후 치료를 종료 하였습니다. 추후 치료 종료 시점에 재 평가 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음성으로 확인 한 후 치료는 종료되었습니다.

고양이 마이코플라즈마는 세균(박테리아)에 의해 발병되는 호흡기, 안과 질병입니다. 이러한 세균들은 적절한 시기에 항생제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점막에 서식하면서 기침, 콧물, 호흡곤란 및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초기에 마이코플라즈마 빠르고 적잘한 시기에 치료가 잘 되면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단, 치료시기가 지연이 된다면 전신 염증으로 파급되어 전신감염으로 치료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감염(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병이 의심된다면,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CR 검사를 위한 샘플채취는 마취가 필요하지 않으며, 결막, 구강 인후두부 또는 비강내부를 면봉으로 이용하여 샘플을 채취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 입니다.

출처 : ~~어린 고양이에서 세균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감기증상 및 치료 - 애니컴메디컬센터~~

~~노견 강아지 유의해야 하는 질병 7가지~~

​​노견 강아지 유의해야 하는 질병 7가지

안녕하세요. 강남구 스마트동물병원 신사본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약 10세에 접어들면 신체 이곳저곳이 약해집니다. 노령견으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관리하고 예방한다면 반려견이 건강한 노령을 보낼 수 있어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있죠? 회복력이 약해지는 노견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견이 어떤 질병을 유의하고 관리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10세 이상 노견이 조심해야 하는 질병

10세가 넘어간 반려견은 주로 어떤 질병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하는지 나이별로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의 ‘동물병원 진료 기록 기반 반려견 내원 이유 분석’에 따르면 1~3위는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계 질환, 설사/구토, 외이염이었는데요. 다른 연령 대비하였을 때 치주염이나 신부전, 심장질환이나 종양 등이 상위권에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0~12세: 치주염, 심장질환, 유선 종양

10세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반려견들에게 심장질환과 유선 종양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납니다.

강아지 심장은 혈액의 흐름을 조절해서 몸 전체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 질환으로 이어져요. 특히 심장 질환은 기침을 하는 증세를 함께 보이는데 이 증세를 단순한 리버스 스니징이나 기관지 협착증으로 생각하여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강아지가 기침, 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을 함께 보인다면 꼭 동물병원에 내원해야 해요. 특히 심장질환에 취약한 견종이거나 유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포메라니안, 말티즈, 푸들, 카발리어 킹찰스 스파니엘, 닥스훈트 등)

강아지 유선 종양과 자궁축농증은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유선종양은 강아지 유선(젖꼭지 부위)에 종양이 생기는 질병이에요. 크기가 작고 수가 작을 수도 있지만 유선 전체에 퍼질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수컷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니 노령견이라면 주의 깊게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 잇몸에 각종 세균이 쌓여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염. 치주염의 경우 심각성으로 따지면 심장질환이나 유선 종양보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견에게는 치주염 역시 꼭 관리해야할 질병이에요. 치주염이 심해지면 발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노견일수록 마취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먹을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여 식욕이 떨어지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 따라서 평상시 강아지 구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해요. 치아와 잇몸 건강에 좋은 것을 급여하는 것도 좋은 관리법이 될 수 있어요.

13~15세: 심장질환, 신부전, 안과 질환

앞서 말씀드린 심장질환의 경우 13세를 넘어가게 되면 발병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13세부터는 신부전과 안과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어요.

강아지 신부전은 혈압, 혈당, 혈액량, 혈액 속 수분 구성, 적혈구 형성도 등 특정 호르몬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이에요. 만약 급성 신부전 발병의 경우라면 부분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반면 만성 신부전의 경우 사실상 기능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관리법을 익힌다면 건강한 노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으나 초기 진단과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강아지의 소변량, 음수량 및 식욕이 눈에 띄게 변했다면 신부전일 수 있으니 음수량을 체크 후 병원에 내원해주세요.

안과 질환 중 노견에게는 특히 노령성 핵경화증과 백내장이 대표적인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두 질환 모두 눈에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있는 질병이에요.

노령성 핵경화증의 경우 시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은 갖지 않아요. 반면 백내장의 경우 질환이 진행될수록 강아지 시력이 손상되어 수술적 치료를 통해 교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의 경우 사람과 달리 시력 의존도가 높지 않아요. 노령견의 경우 건강 상태와 마취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내장 발병 시 수술적 치료 진행 여부를 수의사와 꼭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0세 이상 노견 강아지가 유의해야 하는 강아지 치매

강아지도 나이가 들면 사람처럼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치매는 인지장애 증후군을 의미해요. 치매에 걸린 노견의 주요 증상으로는 방향감각, 상호작용, 수면, 배변, 활동성의 이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반려견이 노견의 나이로 들어선다면 관련 증상에 대해 알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민감하게 살펴봐야 해요.

강아지 치매의 주요 증상 5가지1. 방향감각 상실

가장 흔한 증상으로 집과 같은 친숙한 환경에서도 문을 잘 찾지 못하는 등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강아지가 공간 감각을 상실하여 소파 뒤를 서성거리다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등의 방향감각을 잃은 모습을 보입니다.

2. 상호작용 변화

강아지가 사회성이 좋고 활발한 성격이더라도 갑자기 사람 혹은 다른 동물에게 짜증을 내거나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치매에 걸리면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방문객이 와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산책 가자는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등 상호작용에 변화를 느낀다면 치매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3. 수면, 생활패턴 변화

밤낮이 바뀌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활동하는 등, 기존 반려견의 생활 패턴과 다른 활동을 보이는 것도 치매 증상일 수 있어요.

4. 배변 실수

강아지가 치매에 걸리면 화장실, 모래, 실외 등 기존에 배변 활동을 하던 특정 장소에서 배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5. 활동성 변화

물체나 사람, 소리 등에 반응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장난감을 던지거나 주인이 집에 와도 반응하지 않거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밥을 먹다가 흘린 것을 찾지 못하는 등 활동성의 변화를 보이는 것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노견이 되면서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변화일 수 있으나, 헤드 보빙, 다리 떨림, 빙글빙글 도는 써클링, 이유 없는 짖음 등의 행동을 보이며 제대로 쉬지 못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세요.

강아지 치매는 특정한 검사로 진단될 수 없어요. 따라서 위 증세를 보이더라도 병원에서는 다른 질병을 먼저 검사,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와 치매 외 질병적 원인이 없다고 판단될 때 치매 진단으로 이어지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관리를 권유드리게 됩니다. . 따라서 노령견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빠른 병원 방문이 필요해요.

노견 건강 관리, 스마트동물병원 신사본원

서울시 강남구 스마트동물병원 신사본원에서는 노견의 건강을 위해 최신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맞춤형 진료를 제공 드립니다. 경험이 많은 수의사들이 노령견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반려견마다의 개벌적인 건강 관리 계획을 통해 건강한 노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노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출처 : 노견 강아지 유의해야 하는 질병 7가지 - 스마트동물병원 신사점~~

흔히 ‘풍치’(風齒)라고 한다. 잇몸에 바람이 든 것처럼 시리고, 아프다. 잇몸은 물론 이빨을 받쳐주는 치조골에까지 염증이 퍼졌기 때문. 이빨에 생기는 충치(蟲齒)보다 훨씬 무섭다. 앞발로 자꾸 얼굴과 머리를 만지고, 보호자가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한다. 역한 입냄새도 문제지만, 염증 세균이 어디로 퍼질 지 모른다. 만일 혈관을 타고 심장이나 간, 콩팥, 머리 등으로 퍼지면 훨씬 더 심각하다. 온갖 병을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소형견들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거기다 나이까지 들면 피하기 어렵다.  
왜 생기는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긴다. 처음엔 플라그(plaque, 치태) 상태였다가 나중에 딱딱한 치석으로 바뀐다. 독성이 강한 혐기성 세균들까지 늘어난다. 그것들이 치주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일단 치주염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해도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어떤 때, 치주염이라 하나?  
치주염(Periodontitis)은 잇몸(치은)과 이빨을 지지해 주는 뼈(치조골)가 파괴되는 병이다. 염증이 뼈에까지 퍼졌다는 얘기다. 입술을 들춰봤을 때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가 벌겋게 되었거나, 입술을 들췄던 손가락을 맡아보면 역한 냄새가 난다. 비린내다. 치석도 이미 많이 쌓여 있는 단계다.  
  
특히 잘 생기는 견종이 있는가?  
재밌는 것은 치주염은 “체중에 반비례하고, 나이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덩치가 작고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서 더 잘 생기고, 또 심해진다는 얘기다.  
  
왜 그런가, 소형견에 특별히 더 많다는 이유가?  
소형견은 앞 이빨이 원래 약하다. 게다가 음식물을 씹지 않고 우물우물하다 바로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다. 잘 씹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형견 대형견과는 다르다. 꼭꼭 씹어야 플라그가 덜 생기는데… 게다가 입이 작아 이빨이 오밀조밀 나있으니 세균이 숨어 있을 공간도 상대적으로 많다. 혀도 입안을 돌며 플라그가 끼이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혀가 짧은 것도 한 원인이다. 병원에 오는 소형견 10마리를 보면 8~9마리가 이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우리나라엔 소형견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  
그렇다. 소형견이 전체의 90%를 넘는다고들 한다. 게다가 요즘 노령견 비중도 점점 늘어난다. 치주질환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치주염 치료를 하자면 마취, 그것도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 사람은 부분마취만 해도 되지만…그런 것도 보호자에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사람 치주염과 동물 치주염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도 치주질환이 흔하지만, 강아지 고양이는 사람보다 무려 5배 정도 더 많다. (\*강아지 입 속은 사람 입 속보다 알칼리성이 강해 플라그가 더 잘 생긴다.) 또 구강 구조도 다르고, 양치질을 자주 하지 못하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균도 조금 다르다.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와 뽀뽀한다고 전염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강아지와 고양이는 또 어떻게 다른가?  
큰 차이는 없다. 고양이도 3살 넘어가면 치주질환 생기는 비율이 약 85%로 비슷하다. 그런데, 고양이 이빨은 강아지 이빨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치주염이 생기면 피해가 더 커진다. 다른 치과 질환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병이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 치주염으로 진단이 나오면 전신마취부터 해야 한다. 그러자면 몇 가지 검사를 먼저 해봐야 한다. 마취가 가능한 지부터 알아봐야 하니까. 그 다음엔 기본적으로 치아 표면 스케일링을 비롯해 잇몸 속 치근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치근활택술’ 등을 진행한다. 염증은 약물도 필요하지만, 레이저나 플라즈마 치료도 한다. 세균을 죽이고, 조직 재생을 돕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결 안되는 정도라면 염증 생긴 부위 이빨을 뽑을 수밖에 없다.  
  
예후가 좋은, 또는 최신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  
최근 플라즈마(plasma) 치료에 주목하고 있다. 스케일링을 한 후에 치주 고랑 및 염증 부위에 플라즈마를 쐬어 세균을 죽이고 치주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다. 염증 치료는 물론 치근 등 잇몸 속 치료, 다른 구강외과 수술 등에까지 두루 활용하고 있다. 특히 만성 구내염과 치은염, 치주염 치료에서 약물 사용을 줄이고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임상 효과가 괜찮아 관련 논문도 준비하고 있다.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루 한번 양치질해주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 매일 양치질을 해 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 개껌이나 사료 첨가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지만, 양치질만한 게 없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전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상태에서 스케일링과 약물 치료, 그리고 꾸준한 양치질을 통해 관리한다면 심각하게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 또 1년에 한두번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면 보호자도 모르고 지나갈 병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다.  
출처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고양이 전염병 종류 l 대표 증상과 예방법 까지

사람처럼 고양이도 다양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 몇몇 전염병은 예후가 무척 좋지 않죠.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급속히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고양이 전염병의 종류와 증상, 예방법까지 알아볼게요.

고양이 전염병 종류

1.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주로 '범백'이라고 말하죠. 파보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전염성 장염의 일종으로 백혈구 수치 감소가 주요 증상이에요.

종합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전염력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 예방 이전의 아기 고양이들이 취약하죠. 생후 3~4개월 사이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감염된 고양이가 썼던 물건이나 분변, 접촉 등을 통해 전염됩니다. 여러 마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범백이 발병됐다면 즉시 다른 고양이들을 격리하고, 모든 물건과 공간을 소독해야 합니다.

대표 증상  
식욕 부진, 활력 감소, 구토, 발열, 혈변 등

범백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염병으로 즉시 입원하여 격리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2.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전염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은 흔하고 경미한 소화기 증상 외에 큰 증상은 없어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전신으로 퍼지며 악성으로 변형되어 전염성 복막염을 유발합니다.

습식 복막염과 건식 복막염으로 구분되는 데요. 초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진행되면서 습식은 흉수나 복수가 차는 증상, 건식은 전신 장기 감염 및 눈과 뇌에서 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건식에서 더 악화된 경우 습식으로 진행되는 형태죠.

복막염은 치명적인 전염병이고, 전용 치료제를 통해서만 치료가 가능해요. 또 병이 진행될 수록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에서 진단 받는 게 중요합니다. PCR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 증상  
초기- 식욕 부진, 복부 팽만, 발열, 체중 감소, 활력 저하  
중기- 흉수/복수(습식), 안구 혼탁, 황달, 경련 등 신경 증상 (건식)

3. 고양이 허피스 / 칼리시

고양이 감기의 일종이에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 칼리시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을 때 발병됩니다. 각각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를 통해 무척 쉽게 감염돼요.

허피스는 결막염 등 안구 질환을, 칼리시는 구내염 등 구강 질환을 동반해요. 다행히 두 질병 모두 종합 백신으로 예방도 가능하고, 회복률도 높은 편이에요.

다만 치료 시기를 놓칠 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어린 고양이나 나이 많은 고양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허피스 대표 증상  
콧물, 재채기,눈곱, 눈 부음, 충혈, 결막염, 식욕 부진, 활력 감소 등

칼리시 대표 증상  
콧물, 기침, 재채기, 발열, 구내염, 침 흘림, 입냄새, 식욕 부진, 활력 감소 등

고양이 전염병, 예방법은?

1. 주기적인 예방 접종

대부분의 전염병은 종합 백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이 불가능 하더라도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죠.

예방 접종은 주로 생후 6~8주령부터 시작해 3주 정도의 텀을 두고 총 3차례를 접종합니다.

이후에는 1년에 1회 항체가 검사를 통해 항체가 부족한 경우 추가 접종을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한 반려 생활을 위한 필수! 꼭 예방 접종을 시행해 주세요.

2. 면역력 영양제 급여

면역력이 약해진 경우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요. 유산균, 오메가3 등 다양한 영양제를 보충해 면역력을 높여주세요.

지금 핏펫에서 다양한 고양이 영양제와 생생한 리뷰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고양이 전염병 종류와 증상, 예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늘 아이의 상태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 주세요. 만약 아이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지체없이 병원에 방문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니 잊지 마세요!

출처 : ~~고양이 전염병 종류 l 대표 증상과 예방법 까지 - 핏펫 - 핏펫몰~~

고양이 범백의 증상, 진단부터 치료까지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집사라면 들어 봤을 고양이 범백(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고양이에게 흔한 전염병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고양이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양이 범백의 원인, 증상, 검사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고양이 범백이란?

고양이 범백이라고 많이 알려진 이 질병의 정식명칭은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이에요. 감염된 고양이에게서 백혈구가 현저하게 감소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고양이 사이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쉽게 전염되고, 걸리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아주 무서운 급성 장염이랍니다.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막고, 감염됐다면 증상을 빨리 파악하여 즉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고양이 범백 원인

고양이 범백은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의 체액이나 배설물 등과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고양이와 접촉한 음식, 물건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옮을 수 있으며, 바이러스는 최대 1년까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사는 고양이 등 다른 고양이와 접촉할 때, 고양이와 외출을 하거나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할 때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고양이에게 감염된 파보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강아지에게 전염되지 않아요.)

고양이 범백 증상

고양이 범백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감염 후 4~6일, 최대 14일의 잠복기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통은 설사, 구토, 피가 섞인 변을 보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탈수, 식욕 감퇴, 무기력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힘이 없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면 고양이 범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 범백 진단(키트 검사)

고양이 범백은 키트 검사로 간단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동물병원에서 검사하거나, 동물약국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하여 직접 검사할 수 있는데요. 검사는 면봉으로 고양이 항문의 분변을 채취한 후 추출액과 희석하여 테스트기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만약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나면 고양이 범백에 걸린 것으로 진단합니다.  
이외에도 혈액 검사로 백혈구 수치의 감소를 확인해 진단할 수 있어요.

고양이 범백 치료 방법

고양이 범백은 급성으로 진행되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염 확인 즉시 독립된 공간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는 고양이가 증상을 버티고 극복하며 스스로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지지 요법을 사용합니다.

고양이 범백에 걸린 고양이는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해요.

수액을 투여해 탈수를 완화하고 비타민A, B, C 등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항생제를 투여해 패혈증 등 2차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구토가 지속되면 항구토제를 투여해 스스로 밥을 먹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요.

백혈구 감소가 심할 경우 수혈을 통해 백혈구 수를 증가시켜요.

회복 후에는 고양이와 접촉했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해요.

고양이 범백 예방

고양이 범백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백신으로 항체가 형성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가벼운 증상에 그칠 수 있거든요. 백신은 고양이 범백을 유발하는 파보 바이러스 외에도 허피스, 칼리시, 클라이미디아 바이러스까지 예방하는 4종 종합 백신을 접종해요.  
4종 종합 백신은 생후 16주 미만일 경우 약 8~12주 사이에 3주 간격으로 총 3회, 생후 16주 이상이라면 3~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장하며, 1년마다 한 번씩 추가 접종이 필요해요. 그리고 집사들이 다른 고양이와 접촉한 후, 손을 깨끗이 씻는 것으로도 예방할 수 있어요.

고양이 범백 후유증

대부분은 고양이 범백에서 완치되면 모든 장기가 회복되지만, 낮은 확률로 신경계 후유증이 남아 머리를 떨거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는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고양이 범백은 전염성이 높고, 증상이 급성으로 진행되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증상이 의심되는 즉시 병원을 찾아 조기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꼭 기억해서 우리 아이와의 건강한 반려 생활을 시작하세요!

출처 : ~~고양이 범백 증상, 진단부터 치료까지 - 핏펫 - 핏펫몰~~

강아지 치매 증상, 진단, 치료 및 관리, 예방법

강아지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반려인과 교감이 끊기는 것은 물론, 안 하던 대소변 실수를 하거나 갑자기 불안해하며 짖기도 하죠.

강아지 치매 역시 사람 치매와 마찬가지로 완치 방법은 없어요. 대신 조기에 발견한다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순 있죠. 어릴 때부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아지 치매 증상, 진단, 치료 및 관리, 예방법 등을 알아볼게요.

강아지 치매란?

치매는 인지 장애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며, 노화로 인해 뇌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가득 쌓여 뇌 신경이 손상되는 질병이에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며 마치 다른 강아지처럼 변하고, 운동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근육이 퇴화하고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강아지 치매 증상

강아지가 치매에 걸리면 여러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요. 질병이 많이 진행되면 마비, 발작 증세와 같은 전신 질환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강아지 치매 증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익숙한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냄

잘 알아듣던 명령어를 인지하지 못함

좋아하던 것들에 무관심

수면 패턴 변화

배변 실수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서클링

활동성 저하, 무기력

강아지 치매 진단

강아지 치매를 바로 확인하는 검사 방법은 없어요. 강아지가 치매로 의심된다면 일단 다른 신체적 질병 때문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혈액검사, X-선 검사, 초음파 검사, 갑상선 검사, 소변 검사 등 증상에 따라 전반적인 신체검사를 합니다. 다른 질병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치매로 판정돼요.

강아지 치매 자가 진단 방법

치매가 의심된다면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강아지 치매 자가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당연히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아야 겠지만, 우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진단표를 바탕으로 치매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강아지 치매 치료 및 관리 방법

여러 제약회사들이 반려견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을 뿐이죠.

치매는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으니,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합병증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아지 치매 관리 방법

기본적으로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좋은 성분의 사료와 영양제를 줘야 해요. 놀이와 산책 등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죠.

뇌 질환 처방식 사료 급여

유산균, 식이섬유, 항산화제, 눈 영양제 등 영양제 급여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놀이

적절한 운동

보호자와 교감 증대

강아지 치매 예방법

치매 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평소에 강아지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해 보세요.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산책

노즈워크

체중관리

적절한 활동량 유지

파프리카, 토마토, 양배추, 브로컬리 등 채소 급여

치매는 질병이 많이 악화된 상태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 관리가 중요한 질병인 만큼 강아지가 노령이라면 평소 세심하게 관찰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반려인의 관심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출처 : 강아지 치매 증상, 진단, 치료 및 관리, 예방법 - 핏펫 - 핏펫몰~~

고양이 방광염 원인, 증상 및 치료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스마트동물병원 신사본원입니다. 고양이 방광염은 고양이에게서 꽤 자주 나타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반려묘와 함께한 지 n년차가 된 집사라면, 고양이 방광염가 낯설지 않을 수 있어요. 흔한 질병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낫는 질병은 아니므로 관리가 정말 중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 해준다면 고양이가 큰 문제 없이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오늘은 고양이 방광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 방광염의 원인

고양이 방광염은 말 그대로 방광에 나타나는 염증을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장기이니 소변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하부요로기 질환인데, 여기서 하부요로기는 방광과 요도를 통틀어 말합니다.

고양이 방광염의 경우 대부분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요.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발성’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중 50~70%가 특발성이라고 하니, 슬프게도 꽤 높은 확률로 우리 집 고양이가 방광염에 걸렸을 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방광 내벽의 특정 물질이 부족한 것이 특발성 방광염의 원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발성이 아닌 경우에는 세균 감염에 의한 방광염이 주된 원인 중 하나에요.

고양이 방광염의 증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신체 기관인 만큼 증상 역시 대부분 소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파악하고 평소에 고양이의 소변 횟수, 색깔, 냄새, 자세 등을 잘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의 변화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래와 같아요.

1. 빈뇨

시도 때도 없이 자주 고양이가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평소 고양이가 물을 많이 먹지 않는 편인데 갑자기 화장실에 자주 간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 배뇨 장애

고양이가 소변을 보기 힘들어하거나 심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화장실에 가서 계속 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오거나 1~2방울만 나오고 만다면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평소처럼 자세를 취했지만 모래에 감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배뇨 장애는 응급 내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혈뇨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도 혈뇨를 보면 병원에 가는데, 고양이 혈뇨 역시 문제가 있다는 신호에요. 문제는 고양이 화장실에 깔린 모래 색깔이 어두운 경우가 많아, 고양이가 피가 섞인 소변을 봐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소변 크기가 너무 작거나 옅은 핑크색을 띤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밝은 색의 모래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악취

고양이의 소변에서 평소와 다르게 강하고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이 또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5. 탁한 색깔의 소변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면, 고양이의 소변 색깔도 달라집니다. 평소처럼 맑은 노란색이 아니라 탁한 오줌이 나올 수 있어요. 마치 안개나 먹구름이 낀 것과 같습니다. 혈뇨와 마찬가지로 탁한 색깔의 소변을 발견하기 어려우니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소변 실수

고양이가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소변을 하는 경우에요. 화장실에서 일을 잘 보던 고양이가 자꾸 침대 이불이나 빨랫감 같은 곳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화를 내면 안됩니다. 고양이는 정말 깔끔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변 실수가 늘어나는 것은 건강이나 화장실의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7. 생식기 그루밍

고양이는 그루밍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생식기 부위를 자꾸만 핥는다면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생식기 근처 털이 축축하게 젖거나, 털이 빠질 정도로 그루밍을 한다면 관찰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닌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고양이 방광염 치료법

고양이 방광염 치료는 추측되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세균 감염이 원인이라면 항생제 치료를, 요도 이물질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석이 문제라면 그 종류와 단계에 따라 처방식을 주면서 추이를 살피고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균성 방광염

감염된 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단, 증상이 조금 개선된다고 해서 보호자가 임의로 투약을 멈추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겨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수의사의 진단을 통해 치료를 진행해 주세요.

특발성 방광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발성 방광염은 뚜렷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고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재발의 위험도 높습니다. 처방식 급여와 음수량 관리, 스트레스 관리, 방광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 급여 등이 필요해요.

특발성 방광염은 빠르게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집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증상을 지켜보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에요. 처방식을 먹이며 음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고양이는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처방식을 바로 먹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존 사료와 조금씩 섞어가며 급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바뀐 사료를 아예 거부한다면, 부지런히 다른 처방식을 찾고 수의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관리가 필요해요.

또한, 고양이의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과 모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지, 환경은 편안한지 등을 항상 확인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주 놀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이 방광염 진단, 치료는 스마트동물병원 신사본원에서

고양이 방광염은 발견하는 것에도, 치료 후 관리하는 것에도 보호자의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관리가 어려운 만큼 고양이가 빠르게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수의사와 꾸준하게 상담하고 예방,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고양이 방광염 원인, 증상 및 치료법 알아보기 - 스마트동물병원 신사점~~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건강검진 필수 항목

1. 문진

검진에 들어가기 전, 사람 가족의 구성과 수, 동물 가족의 구성과 수, 사료의 종류, 사료 급여 방식, 동거하는 동물과의 관계 등 반려묘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 파악하게 됩니다. 반려묘의 생활환경은 검사결과의 해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신체 부분을 검진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바이탈사인(체온, 심박수, 호흡수 등), 외이도의 상태, 결막과 눈의 상태, 치아 건강 상태, 비만 정도, 피부와 모질 상태, 항문주변과 생식기의 상태 등 집에서 살펴보기 힘든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게 됩니다.  
매일 보는 반려묘이지만, 놓칠 수 있는 이상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3. 혈액 검사

건강검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크게 혈액생화학 검사와 혈구검사로 나뉘죠. 혈액생화학 검사는 체내의 장기들에서 수행하는 각종 대사활동의 부산물들과 필요한 효소들에 대한 검사로, 현재의 장기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검사 종류는 8~24종으로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생화학 검사를 통해 간과 신장의 기능, 혈당과 체내 단백질의 양, 소화효소, 영양 상태, 전해질의 균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혈액생화학 검사의 각 항목들은 한 가지 이상의 장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KP라는 항목은 간, 뼈, 신장 등에 이상이 생기면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KP 수치 하나만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과 관련해서 변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항목들의 수치와 함께 결과를 해석해야 하죠. 따라서 검사항목이 많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또다른 혈액 검사인 혈구검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의 수와 비율을 보는 검사입니다. 빈혈과 염증 상태, 탈수 여부, 감염 등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4. X-선 검사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필요한 장기를 부위별로 촬영하게 됩니다.  
흉부방사선 촬영은 가슴부위를 촬영하여 기관지, 심장, 폐의 이상을 살펴보고, 복부방사선 촬영은 배 부위의 소화기와 간, 신장, 방광의 이상을 살펴봅니다.  
고양이의 품종이나 나이에 따라 관절의 상태를 체크하는 골격계 방사선 촬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5. 소변 검사

방광염의 유무, 신장의 이상, 당뇨, 소변의 농축 정도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간단한 키트나 스틱을 이용한 간편 검사도 있고, 소변 내 대사물질을 검사하는 복잡한 검사도 있습니다. 7살 이상의 고양이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후 이상이 발견되면 복잡한 검사들이 추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 시에는 간편 검사로 진행합니다.

😺병원가기 전에 비뇨기 건강을 먼저 알아보고 싶다면?  
[반려동물 소변 검사 키트 보러 가기](https://www.fitpetmall.com/mall/products/1000000617)

고양이 신장 건강을 위한 추가 항목특수 혈액 검사

고양이는 신장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동물이라 신장초기검사(SDMA)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장 역시 고양이에게 취약한 기관이라 심근호르몬검사(proBNP)를 함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꼼꼼하게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항목초음파 검사

초음파를 이용하여 장기 내부의 움직임과 구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혈액검사 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장기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혈액검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검사인 셈입니다.

초음파 검사도 각 장기별로 진행하게 되고, 복강 내의 장기를 보는 복부 초음파 검사와 심장의 상태를 보는 심장초음파 검사로 크게 분류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사연자의 고양이인 두유는 생애 전환기에 있는 7살 고양이이므로 문진, 신체검사, 17종 이상의 혈액생화학검사, 혈구검사,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필수 고양이 건강검진 항목, 기억해뒀다가 꾸준히 챙겨주세요. 미리 질병이나 몸의 약한 곳을 알아내서 관리하면 우리 아이들의 수명도 늘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 불필요한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출처 :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건강검진 필수 항목 - 핏펫 - 핏펫몰~~